

# 부모양육태도 및 또래요인이 청소년의 음란물 매체 몰입에 미치는 영향

## The Effects of Parenting and Peers on Pornography Media Engagement

양숙자

신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Sook-Ja Yang(sook9578@hanmail.net)

###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부모양육태도 및 또래요인이 청소년의 음란물 매체 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이를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한국 아동·청소년패널조사(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KCYPS)’의 초등학교 4학년 패널 4차년도(2013년, 중1)와 중학교 1학년 패널 4차년도(2013년, 고1) 자료를 활용하였다. 패널 조사에서 조사된 사례 수는 초등학교 4학년 4차년도 패널 대상 2,378명과 중학교 4차년도의 패널 대상 2,361명이었으나 음란물 매체몰입 문항에서 응답이 이루어진 사례(중1= 190명, 고1=530명) 720명의 설문지가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연구결과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음란물 매체 몰입 비율이 높았다. 또한, 부모양육태도 중 비밀관성과 과잉간섭이, 또래요인 중 또래애착 및 비행친구 수가 청소년 음란물 매체 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 음란물 매체 몰입에 대한 개입을 그동안의 통제적 개입에 앞서 부모교육 강화 및 또래관계를 높이는 방안이 중요함을 제안하였다.

■ 중심어 : | 또래요인 | 부모양육태도 | 음란물 매체 몰입 | 한국 아동 · 청소년 패널조사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influence of parenting and peers on youth engagement to pornography media, the fourth year data of the fourth-grade panel (first year at middle school) and the fourth-year data of the eighth-grade panel (first year at high school) were analyzed. The number of cases investigated for this panel study were 2,378 subjects among the fourth-year panel of the fourth grade and 2,361 subjects among the fourth-year panel of middle schoolers. But this study, the total of 720 subjects that the response were made in the pornography items are analyzed. The result of this study reveals that male students were more likely to be addicted to pornography than female students. Also, inconsistency and excessive intervention among the parenting attitudes and peer attachment and numbers of delinquent friends among the peer factors were shown to have influence on youth addiction to pornography. Based on such results, a proposal that a plan to increase the parental education and strengthen peer relationships is important ahead of the Controlled intervention in the meantime was made.

■ keyword : | Peer Factors | Parenting | Pornography Media Engagement | Korean Child · Youth Panel Survey Data |

접수일자 : 2016년 06월 29일

수정일자 : 2016년 07월 14일

심사완료일 : 2016년 07월 14일

교신저자 : 양숙자, e-mail : sook9578@hanmail.net

## 1. 서론

1997년에 제정된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의 제정 계기는 당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빨간마후라’ 사건이었다. 당시 여중생이 고등학생과 성행위하는 내용을 담은 이 영상은 10대 청소년들 사이에서 비디오 복제 형태로 유포되다가 성인에게까지 유포되면서 논란이 되었다. 이와 함께 일본에서 건너온 음성적인 ‘원조교제’ 문화도 법 제정의 사회적 배경으로 꼽힌다. 이렇듯 10년 전 청소년들의 성비행은 청소년의 성에 대한 국가와 사회적 인식을 전환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청소년 성행동 및 성태도가 그때보다 더 안전하다거나 건강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도리어 유해매체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새로 제정된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의 시행 이후 유해매체라는 표식을 하여 청소년들의 접근을 금지시킨 이후에 오히려 청소년의 유해매체의 접근이 늘어났다는 보고서가 있다[1]. 더불어 최근의 다양한 인터넷 관련 기사나 연구들은 청소년들의 인터넷 음란 사이트 접속, 인터넷상의 음란물 유통, 음란채팅, 인터넷을 통한 청소년 성매매, 음란사이트 접속 중의 자위행위 채팅상 대와의 실제 성행위, 사이버 성폭력이 실제 성폭력으로 이어지는 현상 등 인터넷을 통한 성적인 활동의 심각성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2]. 특히 스마트폰을 통해 청소년들이 손쉽게 음란물을 접할 수 있어 심각성이 더욱 커지고 있으며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등을 통해 쉽게 접할 수 있는 음란물들이 청소년들을 병들게 하고 잠재적 성범죄자로 만들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여성가족부[3]에 따르면 청소년 4명 중 1명은 한 달에 한 번 이상 음란물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스마트폰을 이용해 음란물을 본 청소년은 최근 2년간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예전에는 음란물을 행여 부모님께 들킬까봐 마음 졸이며 찾아보는 경우가 많았지만 요즘 아이들은 스마트폰을 통해 너무나 손쉽게 접하고 있다. 이는 성인인증 절차가 필요 없는 허술한 유해매체가 많기 때문이다. 각종 광고와 검색기능을 경로로 활용하거나 메시지를 통해 동시다발적으로 링크를 공유하기도 무척 쉽다[4][5]. 또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연령만큼이나 음란물을 접하는 연령대도 점차 낮아지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6].

2015년 12월 한 달 간 동아일보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수도권 아동·청소년 512명(초등학교 4~6학년 260명, 중학생 252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통해 음란물을 접한 경험이 있다”는 비율은 32.8%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비의 경우 남학생이 38.8%, 여학생이 26.6%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7]. 이러한 결과는 성(性)에 대한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왜곡된 성 지식을 습득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청소년기에는 자신의 신체가 성숙해감에 따라 성에 대한 호기심도 늘어나 성적 자극을 주기 위해 고안된 외설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음란물이 청소년들에게는 성적인 정보를 얻는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 이는 청소년의 60% 이상이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음란물을 이용한 경험이 있으며, 인터넷 음란물 접촉 이유로 ‘성적 호기심’을 가장 우선적으로 응답한 조사결과들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8]. 이러한 연구들은 청소년의 성적 호기심 및 성에 대한 지식의 창구로서 인터넷을 비롯한 다양한 매체들이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매체들에 대한 완전한 통제를 할 수 없다면 음란물 매체에 대한 다른 경로를 우선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체계가 바로 청소년의 가장 중요한 환경체계라 할 수 있는 부모 및 또래체계라 할 수 있다. 이미 선행연구에서 부모양육태도[9-11]가 청소년의 성문제를 비롯한 비행 행동들과 관련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청소년들이 가장 밀접하고 중요하게 관계하는 대상이라는 점에서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청소년기는 부모뿐 아니라 친구와의 관계에도 예민한 시기이기 때문에 또래애착이 청소년들의 문제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12]. 청소년들은 또래들과 정서적인 유대감이 약할수록 성행동을 비롯한 비행 수준이 높고[13][14], 음란물 접촉, 공격적 행동, 성비행이 증가하며, 또래로부터 거절경험이 높을수록 문제적 성행동 수준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5]. 게다가 비행친구는 청소년의 성비행에 유의한 예측요인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2] 부모 및 또래요인은

청소년의 성 행동과 상당한 관련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청소년 음란물과 관련한 연구에서는 음란물 매체 몰입을 독립적인 종속변수로 두기보다는 비행이라는 큰 개념 속에 음란물 노출 정도를 포함시켜 연구한 것이 대부분이다. 음란물 노출이 성 비행이라고 규정짓는 것은 개념에 대한 오류를 포함하기에 본 연구에서는 음란물 매체 몰입 변수를 종속변수로 그 범위를 한정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또한 기존 연구에서는 청소년 비행의 예측요인으로 부모양육태도와 또래요인을 각각 나누어 살펴보았다. 그러나 청소년의 문제행동에서 부모 및 또래요인은 상호 독립적으로 작용하기보다는 상호관련성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는 보고[16][17]에 근거하여 이들 변수를 동시에 투입하여 영향력의 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또래요인을 동시에 투입하여 청소년의 중요한 환경체계가 청소년의 음란물 매체 몰입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고자 한다. 이는 청소년에게 부모와 또래요인은 상호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가정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청소년의 음란물 매체 몰입에 대한 사회복지적인 개입 방안을 비롯한 청소년들의 가장 중요한 환경체계인 부모와 또래에 대한 개입지점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에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사회학적 변수에 따른 음란물 매체 몰입의 차이는 어떠한가?

둘째 부모양육 및 또래요인은 음란물 매체 몰입에 영향을 미치는가?

## II. 선행연구 고찰

### 1. 청소년과 음란물 매체 몰입

음란물이란 인간의 성적 행위를 노골적으로 묘사하여 음탕하고 난잡한 느낌을 주는 사진이나 잡지, 영상물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우리나라 이동통신가입 청소년 465만명 중 75.4%인 350만 명이 음란물 등 유해 매체물에 무방비로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18].

여성가족부와 통계청[19]에 따르면 청소년 유해매체 이용 경험률 중 ‘휴대폰을 통해 성인물을 접했다’고 답한 청소년의 비율은 전체의 52.6%에 달했다. 2012년 20.5%에 비해 약 3배 증가한 수치다. 스마트폰이 필수품이 된 지금, 아이는 자신만의 공간에서 단 1초 만에 스마트폰을 켜고 성(性)을 배운다. 과거에는 집이나 PC방에서 부모님이 오실까 초조해하며 음란물을 봐야 했지만 이제는 휴대폰으로 클릭만 하면 어디서든 음란물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음란물에 노출된 청소년들은 음란한 장면에 대한 연상 작용으로 새로운 음란물을 계속 보고 싶어 하거나 집중력이 떨어져 공부에 지장을 받게 되고, 성충동이 증가된다. 또 음란물에 표현된 성범죄나 변태행위를 일반적인 성으로 잘못 이해해 성적 일탈을 저지르게 되고, 음란물을 제작, 유통하는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며, 나아가 일부 청소년들은 사이버음란물에 중독된다[4][20][21]. 또한 음란물 매체 몰입이 높은 청소년들은 보다 새롭고 자극적인 음란물을 찾게 되고, 정기적으로 음란물을 보아야만 마음이 안정되고, 한번 보기 시작하면 멈추기가 어려운 증상을 보인다. 음란물 매체 몰입은 치료가 쉽지 않아 청소년 자신과 가족에게 커다란 고통을 안겨주기도 하는데 음란물 매체 몰입은 부모와 자녀간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대립과 가출 등 부작용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김상범[2]과 김수정[22]은 특히, 음란물에 대한 노출이 의도적,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상태가 되는 심한 음란물노출의 경우는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보고되고 있다[23]. 더불어 인터넷 중독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을 중독유형별로 비교한 연구에서도 음란물 매체 몰입으로 분류된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상태가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난 점[5]도 간과할 수 없다. 미국 심리학자인 빅터 클라인은 ‘음란물 매체 몰입 4단계’를 주장했다. 1단계는 호기심으로 음란물을 본다. 2단계는 점점 더 자극적인 것을 찾게 된다. 3단계는 음란물 내용이 일반적인 성적 행동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무감각 단계다. 4단계는 실제 경험해 보고 싶은 욕구가 생겨 모방하는 시도를 하게 된다. 이 모방 시도는 대개 성폭력으로 나타나게 된다고 했다[24]. 이러한 중독의 4단계는 청소년의 음란물 매체 몰입이 청소년의 성비행으로 발달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어 청소년의 음란물 매체 몰입 예방과 초기 치료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있다. 빅터 클라인에 의하면 일단 음란물에 중독되면 현실과 환상이 구분되지 않는 병적인 성적 환상을 가지게 되는데 이 환상은 뇌에 각인되어 평생 남아 있게 된다고 하였다. 특히 아이들은 음란물 속의 성폭행, 신체 폭력, 여성 비하 등의 엽기적 성행위 영상들을 수년이 지나도 세세한 부분까지 기억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사춘기에 접어들어 성에 대한 호기심이 강한 청소년들에게 노골적으로 성을 묘사하고 있는 음란매체들, 즉 음란 영상매체, 음란 인쇄매체, 음란 컴퓨터 프로그램 등은 금기시되거나 쉽게 그려내기 어려운 성의 문제를 아주 노골적으로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성에 대한 가천관이 확립되기 이전인 청소년들에게 정신적인 악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청소년의 음란물 경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촉구된다고 하였다[24]. 또한 이정윤과 이명화[25]는 음란물에 자주 노출되는 청소년들은 성행동과 관련된 성지식의 수준은 높지만 정확하고 건강한 성에 대한 상식은 낮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그 외 다수의 연구에서도 음란물에 접촉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성충동을 비롯한 성희롱, 성추행이나 성폭력과 같은 성비행이 높아 질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26-28].

청소년은 성인과 마찬가지로 성적인 존재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청소년 시기의 성적 발달과제는 건강하고 건전한 성가치관 정립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청소년의 음란물 매체 몰입은 이러한 청소년의 건강하고 건전한 성가치관 확립을 위한 걸림돌이 될 것이 분명하다. 이에 청소년의 음란물 매체 몰입으로부터의 예방과 이에 대한 치료적 접근을 위한 연구는 청소년 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한 맥을 차지할 것으로 사료된다.

## 2. 부모양육태도와 청소년의 음란물 매체 몰입

가정은 자녀가 태어나 최초로 접하는 환경이자 자녀의 전인적 성장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체계로 알려져 왔다. 특히 가정환경에서 중심이 되는 부모는 자녀가 가장 가깝게 관찰할 수 있는 이성관계의 모델이 된다. 문선화와 이선에[29]의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의 가족생활 만족도는 성의식 및 성행동과 정의 상관관계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영옥·이상준[30]의 연구에서는 부모나 친구와의 관계가 좋을수록 사이버섹스 중독수준이 낮아진다고 보고하였다. 하상희·이주연·정혜정[31]의 연구에서도 청소년이 성과 관련하여 부모와 대화를 많이 할수록 문제적 성행동이 감소한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부모의 양육태도가 성행동에 영향을 미침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부모양육태도 또한 자녀의 성격 및 사회성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32]. 특히 부모의 애정적 양육행동이나 비밀관성, 과잉간섭, 과잉기대의 정도에 따라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가 다르게 나타나기도 한다[33]. 또한,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에게 정서적 안정감과 편안함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중요한 환경적 요소로 가정 내에서 부부간 양육태도의 불일치가 높고 아동들이 이러한 양육환경에 자주 노출 될수록 자녀의 심리 및 정서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주어 심리적 부적응의 문제를 가져온다[34].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하여 윤언정과 김경연[35]은 부모의 양육행동이 자녀의 정서행동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또 다른 선행연구[36-38]에서도 부모의 과잉기대를 크게 지각할 경우 청소년의 공격성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장재홍[39]의 연구에서도 부모의 양육태도에 있어서 심리적인 결여, 무관심, 무당한 압력을 가할 때 청소년은 인터넷 중독이 높았으며, 최나야와 한유진[40]의 연구에서도 부모와의 부정적인 의사소통이 인터넷 중독 수준을 높이는 주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은 부모의 양육태도를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예측하는 주요한 변수로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연구에서는 부모의 비밀관성 및 과잉기대, 그리고 과잉간섭과 청소년의 음란물 매체 몰입 간의 직접적인 관계를 검증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즉 부모의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비행과의 관련성을 보고한 연구는 많지만 정작 청소년기 중요 문제행동 중 하나인 음란물 매체를 종속변수로 한 연구는 보고된 바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부정적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문제행동의 중요 예측변수임을 보고한 선행 연구를 근거로 부모의 양육태도 중 비밀관성, 과잉기대, 과잉간섭을 선정하여 이러한 요인들이 청소년의 음란

물 매체 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한다.

### 3. 또래요인과 청소년의 음란물 매체 몰입

또래란 같은 연령대로 정신적, 신체적으로 발달과 행동이 유사하고, 사회적으로 동일시되어지고, 일상적으로 함께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대상을 말한다[41]. 청소년기는 가정으로부터 확장된 대인관계를 추구하면서 또래 관계에 강한 애착을 가지는 시기로, 청소년기의 또래친구는 청소년에게 정서적 지지를 제공할 수 있는 강력한 체계라 할 수 있다[42]. 즉 청소년 시기는 동년배의 영향력이 최고조에 달하는 시기[43]로 타인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관심이 많으며, 또래관계는 청소년기의 행동과 발달에 주요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 Ainthworth[42]는 청소년기의 특징을 살펴본 연구를 통해 청소년기는 또래관계가 더욱 중요해 지면서, 청소년들이 자신의 고민을 해결할 때나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부모나 교사보다 또래와 나눈 의견 결과를 더욱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Jaccard & Dodge[44]는 청소년기에는 부모의 영향만큼 또래의 영향도 크게 받는다고 하였다. 이는 청소년이 성장함에 따라 또래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초기 애착이 양육자를 통해 이루어지지만 청소년기에 이르러 또래와의 애착이나 이성과의 협력관계를 통해서도 재애착(re-attachment)을 보인다[45]. 즉 원만한 또래관계는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력, 적절한 사회기술 능력, 이타적인 성향, 정서조망 수용기술과 사회적 적응의 수준과 관련이 있으며[46], 또래관계의 질이 높고 또래로부터 수용되는 청소년들은 비행을 저지를 확률이 작아졌다는 연구결과들이 있다[47]. 이들 연구들은 또래애착이 청소년의 긍정적 적응과 관련이 있음을 보고하고 있지만 일부 연구에서는 다른 결과를 보고하기도 한다. 즉 비행을 포함한 청소년기 발달에서 또래 애착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는 것이다 [14][48]. 이처럼 또래애착은 청소년의 비행이나 발달에서 상이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지만 인터넷 중독 및 음란물 매체와의 관계에서는 대체적으로 일관된 결과를 보이고 있다. Koo & Kim[49]은 음란물 매체 몰입이 심한 청소년들은 또래와 진지한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고하였으며, Choi와 Ha[50]는 또한 인터넷중독 수준이 높을수록 다른 친구들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지 못하여 혼자 있는 경우가 많음을 보고하였다. Nam과 Lee[51]의 연구에서도 친구관계가 좋을수록 사이버섹스중독이 약화됨을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을 볼 때 청소년 시기의 건강한 또래관계는 청소년의 인터넷을 비롯한 음란물 매체몰입에서는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예측하게 한다.

한편, 기존연구들은 청소년의 음란물 접촉과 사회적 영향과의 유의미한 관계를 보고하고 있다. 다시 말해 주변 친구들의 음란물 접촉이 높고 그와 같은 음란물 접촉 권유를 많이 받으면 음란물을 이용하는 시간이 증가하였으며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음란물을 유포하는 행위까지도 할 수 있다는 것이다[52]. 사실 비행과 비행친구의 높은 상관관계는 범죄연구를 통해 밝혀진 가장 강력하고도 일관된 결론으로 지적되고 있다[53]. 이는 차별접촉이론[54]으로 설명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청소년들이 비행친구들과의 접촉을 통해 비행과 범죄를 학습한다는 것이다. 친구들은 비행의 방법과 기술뿐만 아니라 왜 비행을 해야 하고 이를 어떻게 합리화할 수 있는지 까지 알려준다. 학습을 통해 비행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형성되면 청소년들은 실제로 비행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다. 비행친구와 비행의 관련성을 규명한 연구는 다소 발견되고 있다[2][55][56]. 이에 대해 노성호[57]와 박영신[58]은 또래관계가 좌절된 청소년들은 비행 청소년들과의 강한 결속력을 형성하고 빈번하고 밀접한 교제를 통해 일탈행동을 하게 된다고 결론짓기도 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에서 알 수 있듯이 또래관계의 성격에 따라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또래요인과 청소년의 음란물 매체몰입과의 관련성을 직접적으로 규명한 연구가 많지 않았다는 점에서 또래요인이 음란물 매체몰입과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를 결론짓기가 어려운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또래요인을 또래애착과 비행친구 수로 구분하여 이러한 변수들이 음란물 매체 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한다. 또래요인은 친구와의 의사소통 및 신뢰 등을 포함하는 진솔하고 정서적

인 상호작용이 강조되는 긍정적인 개념이며, 비행친구는 비행경험이 있는 친구를 의미하는 부정적 개념으로 사용하였다. 그동안의 연구들은 또래요인과 인터넷중독 및 비행과의 관계 검증이 다수를 이루면서 음란물 매체 몰입의 예측요인으로서 또래요인에 대한 경험적 연구결과가 축적되지 못한 상황이다. 또한 기존의 연구들은 청소년의 음란물 노출정도와 성행동 및 성인식 등에 대한 연구를 통해 청소년의 음란물 매체에 대한 통제를 위한 정책방안 제안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의 성적 호기심을 정책적으로 통제하기 앞서 음란물 매체 몰입에 빠지는 원인을 탐색하는 연구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청소년의 가장 중요한 환경 변인이라 할 수 있는 부모와 또래요인을 통해 청소년의 건강한 성행동을 가정과 학교에서 개입할 수 있는 지점을 경험적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 III. 연구 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KCYPS: Korean Children & Youth Panel Survey)의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KCYPS의 표본은 2010년 기준 전국의 초등학교 1학년과 4학년, 중학교 1학년 재학생을 모집단으로 하여 다단계화집락표집 방식으로 추출되었다. 표본학교 추출은 16개 광역시·도와 도시규모(대도시/중소도시/군지역)를 교차하여 추출한 27개 집락별로 확률비례추출법(PPS)에 의거하여 선정된 학교를 대상으로 무작위로 학급을 선정하여 조사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4학년 패널 4차년도(2013년, 중1)와 중학교 1학년 패널 4차년도(2013년, 고1) 자료를 활용하였다. 즉 다시 말해 본 연구는 종단조사인 패널 자료를 활용하였으나 분석에 최종 사용된 자료는 2013년도 중1과 고1 대상의 청소년 자료를 활용한 횡단연구라 할 수 있다. 원자료에서 조사대상자는 초등학교 4학년 4차년도 패널 대상(2013년 중1) 2,378명과 중학교 4차년도의 패널 대상(2013년 고1) 2,351명으로 전체

4,729명이었다. 그러나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음란물 매체몰입 8문항에서 고1학년은 1,821명이 결측 처리되어 530명만이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1학년은 190명이 응답하고 2188명이 결측처리되어 원자료를 그대로 사용할 경우 정규분포성 및 전체 분석에서 왜곡된 결과를 산출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결측치를 제외한 전체 720명의 사례가 최종분석에 활용되었다.

표 1. 연구대상자의 특성 (N=720)

특성	구분	n	%
성별	남	623	86.5
	여	97	13.5
학교급	중1	190	26.4
	고1	530	73.6
부모구성	양친부모	616	87.3
	그 외	90	12.7

위 [표 1]은 연구대상자의 성별, 학교급, 부모구성에 대한 빈도분석 결과이다. 성별을 보면 남자가 86.5%(623명), 여자가 13.5%(97명)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에서는 고1이 73.5%(530명), 중1이 26.4%(190명)로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부모구성은 양친부모가 87.3%(616명), 그 외가 12.7%(90명)로 양친부모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인구사회적 분포가 이렇듯 차이가 나는 것은 본 연구의 분석자료가 음란물 매체몰입에서 응답을 하지 않은 사례를 제외한 것과 관련이 있다.

#### 2. 측정도구

##### 1) 독립변수: 부모양육태도 및 또래요인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청소년 음란물 매체 몰입에 주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하고 부모의 양육태도를 독립변수로 선정하였다. 부모의 양육태도 하위요인으로는 비밀관성, 과잉기대, 과잉간섭이다. '비밀관성'은 자녀에 대한 훈육의 기준에 일관성이 없는 태도로 상황에 따라 혹은 부모의 감정에 따라 다른 양

육행동을 나타내는 태도로 정의된다. ‘과잉기대’는 자녀의 능력에 비해 과도한 기대수준을 갖는 태도로서, 지나치게 경쟁적이고 지적인 성공을 강조하는 태도를 말한다. ‘과잉간섭’은 자녀의 개인적인 생활에 대해서까지 지나치게 관여하고 간섭하는 태도로서, 자녀의 흥미나 독립성을 고려하지 않고 어른의 기준에 무조건 맞추도록 요구하고 자녀의 행동에 대해 불안해하는 태도로 정의하였다[59].

또한 본 연구에서 활용한 부모양육태도는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2013)에 수록된 부모양육태도 척도 중 비밀관성(3), 과잉기대(4), 과잉간섭(4)의 총 11개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허묘연[59]의 부모양육태도 검사도구 중 부정적 양육태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매우 그런 편이다(1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4점)’로 평정되었지만 본 연구에서는 역채점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의 비밀관성 및 과잉기대 그리고 과잉간섭이 높다고 해석하였다. 척도의 내적 합치도에 의한 Cronbach’s  $\alpha$  계수는 비밀관성 .689, 과잉기대 .698, 과잉간섭 .717로 나타났다.

또래요인은 또래애착과 비행친구 수로 조작화 하였으며,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또래애착이란 청소년이 또래에 대해서 느끼는 강한 정서적 유대관계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또래요인은 의사소통, 신뢰, 소외 등 3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된다. 하위요인들은 각각 3문항씩으로 총 9문항으로 측정 되었다. 이 문항들은 Armsden & Greenberg[60]가 제작한 애착척도(IPPA) 총 25문항 중 일부를 수정한 것이다. 각 문항들은 4점 척도로 ‘매우 그렇다(1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4점)’로 평정되지만 소외 문항의 경우 역채점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또래애착의 하위요인을 모두 합하여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또래애착이 높다고 해석하였다. 또래애착 전체 문항의 Cronbach’s  $\alpha$ 는 .825로 나타났다.

비행 친구 수는 흡연, 음주, 무단결석, 가출, 심하게 놀리기, 집단따돌림 시키기, 패싸움, 신체폭력, 협박, 물건 빼앗기, 절도, 성관계, 성폭력, 도박게임 등 14개 문항에 대해 자기기입식으로 해당 친구수를 직접 적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전체 문항의 값을 합산하

여 사용하였으나 극단치가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된 사례(예를 들어 한 문항의 값을 100이상으로 둔 값 등)는 제외하고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비행친구 수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 2) 종속변수: 청소년 음란물 매체 몰입

청소년의 음란물 매체 몰입이란 음란물 매체에 대한 내성과 금단증상, 일상생활장애 등의 정도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음란물 매체몰입의 측정은 김은정[61]의 인터넷중독척도 문항 중 성인매체와 관련된 문항을 수정·보완한 8문항을 사용하였다. 응답 범주는 Likert 4점 척도로 ‘매우 그렇다’ 1점, ‘그런 편이다’ 2점, ‘그렇지 않다’ 3점, ‘전혀 그렇지 않다’ 4점으로 구성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모든 문항은 역채점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음란물 매체몰입도가 높다고 해석하였다. 문항 구성은 ‘성인매체를 이용하느라 해야 할 일이나 학업을 소홀히 한다’, ‘성인매체를 다시 이용하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가 있다’, ‘평소에도 성인매체에 대한 생각으로 꼭 차있다’, ‘친구들과 놀기보다는 성인매체를 이용하는 것이 더 좋다’ 등이다. 이 척도의 내적합치도에 의한 Cronbach’s  $\alpha$ 값은 .895로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3) 통제변수

모형에 포함된 주요변수 외에 통제변수로는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변수인 성별, 학교급별, 부모형태를 포함시켜 분석 하였다. 성별은 남(0), 녀(1)로 가변수 처리하였으며, 학교급은 중학생(0), 고등학생(1)로, 부모형태는 양친부모(0), 그 외(1)로 구분하였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음란물 매체 노출이 더 많다는 보고 홍성례[62] 황정희[63]와 학교급에 따라 음란물 중독 분포가 다르다는 보고 김은실[26] 남영옥[5] 가족형태[64]에 의해 청소년의 음란물 노출에 많다는 보고에 근거하여 이들 변수를 본 연구의 통제변수로 선정하였다.

## 3. 자료처리 및 분석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한글 SPSS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

다. 첫째, 자료의 편집을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둘째, 조사자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내적 일관성 분석에 의한 Cronbach's  $\alpha$  계수를 산출 하였다. 셋째,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관련변수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를 활용하였다. 넷째, 관련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피어슨(Pearson)의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다섯째, 인구사회적 특성에 따른 음란물 매체 몰입의 평균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여섯째, 부모양육태도와 또래요인이 음란물 매체 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III. 연구결과

#### 1. 기술통계량

본 연구에서 사용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에 대한 기술적 분석은 [표 2]와 같다. 일반적으로 SPSS에서는 왜도가 절대값 2이하, 첨도가 4이하인 경우를 정규분포 조건이 충족된 것으로 본다[64]. 본 연구에 사용된 주요 변수의 왜도는 .07~1.98로 나타났으며, 첨도에서는 .01~3.35로 나타나 정규분포 가정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주요변수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보면 부모요인에 해당되는 부모비밀관성은 1~4점 범위에 평균 2.29( $\pm 0.64$ ), 과잉기대평균 2.51( $\pm 0.57$ ), 과잉간섭평균 2.30( $\pm 0.61$ )으로 나타났으며, 또래요인에 해당되는 또래애착 평균은 1.33~4점 범위에서 3.07( $\pm 0.44$ ), 비행친구 수는 전체합산 0~65 범위에서 평균 9.14( $\pm 13.18$ )로 나타났으며, 음란물 매체 몰입은 1~3.88 범위에서 평균 1.64( $\pm 0.53$ )로 나타났다

표 2. 관련변수의 평균 및 표준편차

변인	N	범위	M(SD)	왜도	첨도
비밀관성	720	1~4	2.29(.64)	.07	.01
과잉기대	720	1~4	2.51(.57)	.10	.07
과잉간섭	720	1~4	2.30(.61)	.21	-.05
또래애착	705	1.33~4	3.07(.44)	.11	.02
비행친구수	704	0~65	9.14(13.28)	1.98	3.35
음란물 매체 몰입	720	1~3.88	1.64(.53)	.61	-.01

#### 2. 인구사회특성에 따른 음란물 매체 몰입

인구사회학적변인에 따른 음란물 매체 몰입의 평균을 비교해 본 결과 성별에서는 남자 1.68, 여자 1.44로 남자가 음란물 매체 몰입도가 유의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4.164, p<.001$ ). 학교급에서는 고1이 중1보다 음란물 매체 몰입 평균이 더 높게 나타났고, 부모구성에서는 그 외 집단이 양친부모 집단에 비해 음란물 매체 몰입 평균이 더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3. 인구사회특성에 따른 음란물 매체 몰입 차이

구분	항목	N	M	SD	t
성별	남	623	1.68	.53	4.164***
	여	97	1.44	.48	
학교급	중1	190	1.63	.60	-.361
	고1	530	1.65	.50	
부모구성	양친부모	616	1.63	.52	-1.501
	그 외	90	1.72	.57	

\*\*\* $p<.001$

#### 3. 관련변수의 상관관계

회귀분석 전 독립변수 간 다중공선성과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우선 독립변수 간 상관관계는 .02~.64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이 의심되는 0.8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나 독립변수들은 배타성이 확보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4. 관련변수의 상관계수

	비밀 관성	과잉 기대	과잉 간섭	또래 애착	비행친구 수
비밀관성	1.00				
과잉기대	.43***	1.00			
과잉간섭	.60***	.64***	1.00		
또래애착	-.18***	-.07	-.23***	1.00	
비행친구수	-.03	-.03	.02	.08*	1.00
음란물 몰입	.17***	.09*	.19***	-.18***	.09*

\* $p<.05$ , \*\*\* $p<.001$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상관계수를 보면 비밀관

성( $r=.17, p<.001$ ), 과잉기대( $r=.09, p<.05$ ), 과잉간섭( $r=.19, p<.001$ )은 음란물 매체몰입에 유의한 정의 상관을 가지며, 또래애착( $r=-.18, p<.001$ )은 유의한 부의 상관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행친구 수( $r=.09, p<.05$ )는 음란물 매체몰입에 유의한 정의 상관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어 독립변수 모두 종속변수와 유의한 관련성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독립변수들은 종속변수인 음란물 매체 몰입을 예측할 수 있는 수준임을 알 수 있다.

### 3. 부모양육태도 및 또래요인이 음란물 매체 몰입에 미치는 영향

[표 5]는 부모양육태도 및 또래요인이 음란물 매체 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1단계는 통제변수로 선정된 인구사회적 변수를, 2단계는 이에 더해 부모양육태도를, 3단계는 2단계에 더해 또래요인을 투입시킨 결과이다.

우선 1단계 투입변수의 음란물 매체몰입에 대한 설명력은 2.5%로 나타났으며, 모형의 적합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F=5.685, p<.001$ ). 통제변수에 음란물 매체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성별 변수로 나타났다( $B=-.22, p<.001$ ). 2단계에서 인구사회적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부모양육태도의 하위요인들을 투입시킨 결과, 투입된 변수들은 음란물 매체몰입을 6.9% 설명하고 있으며, 이는 1단계에 비해 4.4% 증가한 것이다. 이러한 설명력의 변화량은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인구사회적 변수가 통제된 상황에서 부모양육태도의 하위요인 중 음란물 매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비밀관성( $B=.10, p<.01$ )과 과잉간섭( $B=.11, p<.05$ )으로 나타났다. 3단계는 2단계 투입변수에 더해 또래요인의 하위변인인 또래애착과 비행친구수를 투입한 모형이다. 3단계 투입변수들은 음란물 매체몰입을 9.6% 설명하고 있으며 이는 이전 단계에 비해 2.7% 증가한 것으로 설명력의 변화량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3단계 또래요인이 투입된 상황에서도 이전 단계에서 음란물 매체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던 비밀관성( $B=.10, p<.01$ )과 과잉간섭( $B=.08, p<.05$ )이 여전히 유의성을

잃지 않았으며 동시에 또래애착( $B=-.19, p<.001$ )과 비행친구 수( $B=.03, p<.05$ ) 또한 음란물 매체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부모의 비밀관성과 과잉간섭을 높게 인식할수록 청소년의 음란물 매체몰입이 유의하게 높아지며, 또래애착이 낮을수록, 비행친구수가 많을수록 청소년의 음란물 매체몰입이 유의하게 높아짐을 의미하는 결과이다.

표 5. 부모양육태도 및 또래요인이 음란물 매체 몰입에 미치는 영향

모형	1단계		2단계		3단계	
	B	$\beta$	B	$\beta$	B	$\beta$
(상수)	1.74***		1.19***		1.73***	
성별	-.22***	-.14	-.22***	-.14	-.20***	-.13
학교급	.01	.01	.05	.04	.06	.05
부모형태	.10	.06	.10	.06	.08	.05
비밀관성			.10**	.12	.10**	.12
과잉기대			-.01	-.01	.02	.02
과잉간섭			.11**	.12	.08*	.07
또래애착					-.19**	-.16
비행친구 수					.03*	.08
R <sup>2</sup> (adj.R <sup>2</sup> )	.025(.020)		.069(.061)		.096(.085)	
R <sup>2</sup> change			.044		.027	
Fchange	5.685***		10.580***		9.858***	
F	5.685***		8.254***		8.819***	

\* $p<.05$ , \*\* $p<.01$ , \*\*\* $p<.001$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음란물 매체 몰입 예방 및 조기개입을 위해서는 긍정적인 부모양육과 또래관계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전제하에 음란물 매체 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고자 선행연구 검토를 바탕으로 가설을 설정하여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해 사용된 자료는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자료 초4와 중1의 4차년도(2013년도 중1과 고1) 자료로 음란물 매체 몰입문항에서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를 제외한 720부가 최종분석에 활용되었다. 주요결과로는 첫째,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음란물 매체몰입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검증되었다. 둘째, 부모양육태도 및 또래요인이 음란물 매체몰입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모양육태도 중 비밀관성과 과잉간섭이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래요인에서는 또래애착은 부

의 영향을, 비행친구 수는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부모양육태도 및 또래요인과 청소년의 음란물 매체몰입에 대해 다음과 같은 함의를 제공한다.

첫째, 음란물 매체 몰입 청소년의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음란물 매체 몰입집단의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유의하게 높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음란물 매체 몰입 비율이 높다는 것은 이전의 여러 연구들[4][25][65][66]에서 일관되게 보고되고 있는 결과이다. 그러나 자칫 남학생의 음란물 매체몰입을 사회적 허용으로 간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결과는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특히 어 기준[4]이 보고한 바와 같이 남학생의 음란물 매체몰입이 높다는 것은 음란물 매체에 대한 노출빈도가 높다는 것 외에 음란물을 판매하고 유통시키는 불법 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음란물에 대한 교육이 좀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부모양육태도가 음란물 매체 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본 결과, 부모양육태도의 하위요인에서 비밀관성과 과잉간섭이 청소년 음란물 매체 몰입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비밀관적이거나 자녀에 대한 간섭이 심하다고 인식할수록 청소년의 음란물 매체 몰입수준이 높음을 의미하는 결과이다. 사실 그동안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비밀관적이고 과잉간섭적인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음란물 매체 몰입 간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검증한 연구가 많지 않아 논의에 어려움이 있지만 몇몇 선행연구[30][11]에서 부모의 과잉간섭 및 과잉보호적 양육태도는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정적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와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부모의 과잉간섭 및 비밀관적 양육태도는 청소년으로 하여금 스마트폰을 비롯한 인터넷 접속이 용이한 환경으로의 도피를 용이하게 하며, 무엇보다 성적 호기심이 높아지는 시기에 음란물 매체에 노출될 가능성을 높게 할 수 있음을 예측하는 결과이다. 이에 대해 Parker[67]는 부모의 과잉간섭 또한 청소년을 통제하는 기제로 작용하여 부모자녀 간의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청소년 자녀의 문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강조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부모의 비밀관적 양육태도는 청소년으로 하여금 행동에 대한 판단기준을 흐리게 하여 심리적 혼란감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높음을 보고하였다. 흥미로운 것은 본 연구에서 부모의 과잉기대는 또래요인이 통제되기 전에는 음란물 매체몰입에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부(-)의 방향을 보였지만 또래요인이 투입되자 정(+)의 방향으로 변화를 보였다는 점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청소년기는 또래요인의 중요성으로 인해 부모의 과잉기대가 오히려 청소년에게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볼 때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교육에서 비밀관성 및 과잉간섭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포함될 필요가 있으며, 청소년기 발달특성에 대한 정보를 통해 일관되면서 자율적 책임을 강조할 수 있는 부모양육태도 교육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또래요인의 하위요인인 또래 애착은 청소년의 음란물 매체 몰입에 유의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기의 또래관계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었다. 기존 연구에서도 음란물에 중독된 청소년은 또래관계의 질적인 측면이 낮음을 보고하였으며 [68], 친구관계가 좋지 않을 경우[30], 그리고 또래들과 정서적인 유대감이 약할수록 위험성행동을 비롯한 비행수준이 높음을 보고한 연구결과[69][70]와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Koo[49] 또한 음란물 매체 몰입정도가 심한 청소년들은 또래와 진지한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고하였으며, Choi[50]의 연구에서도 음란물 매체 몰입이 높은 청소년들은 다른 친구들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지 못하고 혼자 인터넷 음란물에 빠져 관계형성에 어려움이 있음을 보고하는 등 본 연구결과와 동일한 맥락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결과를 비롯한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를 볼 때 친구와 친밀한 관계를 맺지 못한 청소년들은 음란물 매체 몰입에 빠질 가능성이 높고 음란물 매체 몰입은 친구관계를 질적으로 악화시킬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에서 청소년의 음란물 매체 몰입에 대한 개입에서 또래관계를 강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무엇보다 음란물 매체 몰입 프로그램에서 또래와의 친밀한

관계형성을 위한 내용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현대 청소년들의 또래관계는 학업성적 및 진학중심의 교육 정책으로 인해 친밀한 우정을 나눌 물리적, 정신적 여유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게다가 스마트폰의 일상화로 인해 친구들과의 실제적인 교류를 할 시간이 점차로 감소하고 있다는 점에서 교육과정을 비롯하여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내에 또래관계를 실제적으로 형성하고 교류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넷째, 비행청소년 수가 많으면 청소년의 매체몰입이 높다는 결과는 그동안 비행과 비행 친구와의 관련성을 보고한 기존 연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연구결과라 할 수 있다. 사실 그동안 비행친구와 비행과의 관련성을 연구들[2][55][56]은 다수 발표되었지만 비행친구 수와 청소년 음란물 매체몰입과의 관련성을 직접적으로 규명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청소년 시기는 신체적 발달로 인해 성적 호기심이 높아지는 시기로 음란물에 대한 호기심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비행친구가 주변에 많다는 점은 음란물 매체 접촉을 더욱 용이하게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음란물 매체 몰입은 또 다른 이차 비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비행과 관련한 수강명령 및 대안교육에서도 음란물 매체와 관련된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하며 교육의 내용에서는 단순히 음란물 매체의 부정성만을 알리는 수준에서 벗어나 음란물에 대한 리터러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청소년의 음란물 매체 몰입에 관하여 한국 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의 전국 데이터를 활용하여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시키는데 좀 더 유용하다고 여겨진다. 그리고 부모양육과 또래요인이 청소년 음란물 매체 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함으로써 그동안의 청소년들의 음란물 매체 몰입의 해결책을 매체에 대한 접근 금지 등의 외현적 방법을 넘어 청소년의 중요한 환경체계인 부모와 또래에 대한 개입지점을 마련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즉 그동안의 연구가 음란물 노출에 의한 성행동에 초점이 맞추어져 청소년의 음란물 매체에 대한 통제에만 관심을 둔 관계로 정작 음란물 매체몰입의 예측요인에 대한 연구가 미진

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성적 호기심이 강한 청소년 시기에 음란물 매체에 대한 통제보다는 건강한 매체 이용을 위한 사회적 관심을 비롯하여 음란물 매체 몰입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개입지점에 대한 경험적 연구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의 논의에 따른 제언을 정리하면 청소년을 둔 부모교육의 내용에서 청소년 시기의 음란물 매체 노출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함께 부모의 비일관성 및 과잉간섭의 내용을 좀 더 구체화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그리고 청소년 음란물 매체 몰입에 대한 예방 및 치료적 개입에서 또래관계를 강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집중적으로 투입되어야 하며, 비행과 관련한 수강명령 및 대안교실 등에서 음란물 매체에 대한 리터러시 교육 등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본 연구는 패널자료를 활용하였지만 변수의 한계로 인해 종단연구가 아닌 횡단연구로 진행된 한계가 있다. 향후 패널자료에 청소년 음란물 매체몰입뿐 아니라 이를 예측할 수 있는 다양한 변수들이 추가될 필요성이 있다고 여겨진다. 또한 본 연구에서 선정된 독립변수들은 종속변수인 음란물 매체몰입에 대한 설명력이 높지 않게 나타났다. 후속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음란물 매체 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다양한 차원에서 밝히는 연구가 수행되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1] 김현주, 윤철경, “청소년보호사업 실태 및 평가 : 청소년 유해매체와 유해업소,” 미래청소년학회지, 제3권, 제2호, pp.19-48, 2006.  
 [2] 김상범, 남영욱, “청소년의 자극추구성향과 성비행의 관계에서부모-자녀 간 의사소통과 비행친구 접촉의 조절효과,” 청소년복지연구, 제17권, 제4호, pp.263-285, 2015.  
 [3] 여성가족부, *청소년 매체 이용 실태 보고서*, 2014.  
 [4] 어기준, “청소년 음란물 매체 몰입의 원인과 대책,” 한국청소년학회, pp.33-48, 2002.  
 [5] 남영욱, 이상준,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유형에 따른 위험요인 및 보호요인과 정신건강 비교연구,”

- 한국사회복지학, 제57권, 제3호, pp.195-222, 2005.
- [6] 여성가족부, 2011년 청소년 유해환경 집중 종합 실태조사, 서울: 여성가족부, 2011.
- [7] 동아일보, “스마트폰 속 ‘왜곡된 성’ 현실로 착각 실행 옮기는 아이들”, 2016.01.06.
- [8] 김상원, 한국중학생의 성의식 조사 및 성교육자료 집 개발연구, 청소년 보호위원회, 2001.
- [9] 서영희, 인터넷 음란물 매체 몰입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특성,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 [10] 신현숙, 박유미, 김선미, “청소년이 지각한 통제적 양육행동과 공격성의 관계: 우울과 역기능적 충동성의 중다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제9권, 제2호, pp.347-366, 2012.
- [11] 손석한, 노경선, 허묘연, 정현옥, 이소희, 김세주, “청소년기 문제행동과 부모 양육행동에 관한 연구”, 신경정신의학, 제40호, 제4호, pp.605-615, 2001.
- [12] 김준경, “부모와 또래에 대한 애착이 교정시설 보호청소년의 위험행위와 비행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제13권, 제3호, pp.241-255, 2008.
- [13] 오혜진, 부모애착, 친구애착, 희망과 청소년비행 간의 관계,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 [14] 이주리, “중고등학생의 부모, 교사 및 친구애착과 비행”, 한국생활과학회지, 제17권, 제4호, pp.563-574, 2008.
- [15] 김인숙, 이경남, “중학생의 부모에 대한 애착, 친구지지와 행동문제”, 한국가정과학지, 제7권, 제2호, pp.97-113, 2004
- [16] 김경, “청소년 비행행동에 있어서 부모요인과 친구요인의 상호작용 효과에 관한 연구”, 청소년복지연구, 제12권, 제4호, pp.1-21, 2010.
- [17] 최홍일,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학교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미래청소년학회지, 제10권, 제3호, pp.117-139, 2013.
- [18] 유승희, 이동통신 청소년 가입자 수 현황,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제출자료, 2015.
- [19] 여성가족부·통계청, 2015 청소년통계, 2015.
- [20] S. A. McGrath, A. A. Nilsen, and K. R. Kerley, “Sexual victimization in childhood and the propensity for juvenile delinquency and adult criminal behavior: A systematic review,”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Vol.12, No.1, pp.485-492, 2011.
- [21] S. Park, M. Morashi, and T. Stevens, “Gender differences in predictors of assaultive behavior in late adolescent,” Youth Violence and Juvenile Delinquency, Vol.8, No.1, pp.314-331, 2010.
- [22] 김수정, “청소년음란물 매체 몰입에 관한 연구,” 정책과학연구, Vol.11, pp.85-126, 2001.
- [23] C. G. Svedin, I. Akerman, and G. Priebe, “Frequent users of pornography, A population based epidemiological study of Swedish male adolescents,” Journal of Adolescence, Vol.34, pp.779-788, 2011.
- [24] 김영화, “음란물 매체 몰입의 4단계”, 동아일보 사설, 2013.
- [25] 이정윤, 이명화, “음란물을 자주 접촉하는 청소년의 성 및 심리사회적 특성,” 청소년상담연구, Vol.11, No.1, 32-4, 200
- [26] 김은실, 김귀정, 김봉한, “고등학생들의 사이버 음란물 접촉과 성범죄와의 상관성 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1권, 제6호, pp.8-17, 2011.
- [27] 남미애, 홍봉선, “청소년의 인터넷 음란물 접촉과 일탈적 성행동과의 관계: 인지적 요인의 매개효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제19권, 제9호, pp.93-124, 2012.
- [28] 남영옥, “청소년의 사이버섹스 중독과 성배행의 심리사회 변인,” 청소년학연구, 제11권, 제1호, pp.167-192, 2004.
- [29] 문선화, 이선애, “가족체계와 청소년 성의식·성행동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제12권, pp.77-97, 2003.
- [30] 남영옥, 이상준, “청소년의 사이버섹스 중독 사이버음란물 접촉 및 성행동과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제9권, 제3호, pp.185-212, 2002.
- [31] 하상희, 이주연, 정혜정, “성과 관련된 부모역할

- 이 대학생의 성태도 및 성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24권, 제1호, pp.271-286, 2007.
- [32] 신성숙, 유영달, “초등학교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양호도 및 부모 간 양육일치도가 정서적 부적응 및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제16권, 제4호, pp.93-113, 2010.
- [33] 김신경, 박민경, 안지선, “학교생활적응과 부모의 양육행동이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부모양육행동 유형의 조절효과,” 청소년복지연구, 제6권, 제2호, pp.163-182, 2014.
- [34] R. E. Emery, “Interparental conflict and the children of discord and divorce,” Psychological Bulletin, Vol.92, pp.310-330, 1982.
- [35] 윤연정, 김경연, “부모의 심리적 통제 및 과잉기대가 청소년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자기애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제48권, 제8호, pp.67-76, 2010.
- [36] 안명희, “모의 불안정 성인애착과 심리적 통제: 모의 정서와 자아 유능감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제15권, 제4호, pp.691-710, 2010.
- [37] 정윤주, “아동의 지각한 어머니의 심리통제와 아동의 행동문제: 아동의 성과 또래수용의 중재효과에 대한 탐색,” 아동학회지, 제25권, 제6호, pp.205-223, 2004.
- [38] 최정아, 이해은, “청소년의 우울과 지각된 부모 지지, 행동적 통제 및 심리적 통제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자아통제력 및 자아유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제2권, 제1호, pp.295-326, 2008.
- [39] 장재홍, “부모의 자녀양육태도가 중학생의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제5권, 제1호, pp.113-128, 2004.
- [40] 최나야, 한유진, “충동성, 부모와의 의사소통 및 인터넷 게임에 대한 기대가 아동, 청소년의 게임 중독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26권, 제2호, pp.151-168, 2006.
- [41] D. G. Perry and K. Bussey, *Social development*, NJ: Prentice-Hall, Inc, Englewood Cliffs, 1984.
- [42] M. D. S. Ainsworth, “Attachments beyond infancy,” American Psychologist, Vol.44, pp.709-716, 1989.
- [43] J. C. Coleman, “Current contradictions in adolescent theory,”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Vol.7, No.1, pp.1-11, 1978.
- [44] J. Jaccard, H. Blanton, and T. Dodge, “Peer influences on risk behavior: An analysis of the effects of a close friend,” Developmental Psychology, Vol.41, No.1, pp.135-147, 2005.
- [45] J. Holmes, 존 볼비와 애착이론[John Bowlby and attachment theory], 이경숙 역, 서울: 학지사, 2005.
- [46] K. D. MaGuire and J. R. Weisz, “Social cognition and behavior correlates of preadolescent chumship,” Child Development, Vol.53, No.6, pp.1478-1484, 1982.
- [47] 양점도, 박영국, “가족요인과 또래 지지가 자기 효능감 및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제14권, 제4호, pp.211-235, 2009.
- [48] J. B. Kupersmidt, M. Burehinal, and C. J. Patterson, “Developmental patterns of childhood peer relations as predictors of externalizing behavior problems,”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Vol.7, pp.825-843, 1995.
- [49] H. Y. Koo and S. S. Kim, “Relationships among cybersex addiction, gender egalitarianism, sexual attitude and the allowance of sexual Violence in Adolesc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37, No.7, pp.1202-1211.
- [50] H. S. Choi and J. C. Ha, “A study on the factors inducing internet addiction of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Data & information science society, Vol.22, No.3, pp.437-448, 2011.
- [51] Y. O. Nam and S. J. Lee, “Relationship among adolescents’ cyber-sex Addiction, Exposure to

- cyber obscenities and cyber sexual activitie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9, No.3, pp.185-212, 2002.
- [52] 김준호, 박해광, "음란물과 청소년 비행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93-04, 11-208, 1993.
- [53] R. L. Matsueda and K. Anderson, "The dynamics of delinquent peers and delinquent behavior," Criminology, Vol.36, No.2, pp.269-303, 1998.
- [54] E. H. Sutherland, *Principles of criminology*, Philadelphia: J. B. Lippincott, 1947.
- [55] 김창익, 유우석, "지역사회의 생태학적 특성이 비행친구와 비행에 미치는 영향 검증," 청소년복지연구, Vol.15, No.2, pp.61-85, 2013.
- [56] 조주연, 김신영, "청소년 비행 결정요인 탐색 : 자기통제력과 자기친구의 주 효과 및 상호작용효과 검증," 미래청소년학회지, Vol.7, No.1, pp.151-173, 2010.
- [57] 노성호, *초등학생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 연구 개관 및 실태 분석*, 아주대학교 교육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58] 박영신, *부모의 양육 태도가 자녀의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한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59] 허묘연,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행동 척도개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9.
- [60] G. C. Armsden and M. T. Greenberg,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ndividual differences and their relationship to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Vol.16, No.5, 1987.
- [61] 김은정, 이세용, 오승근, "한국권 청소년 인터넷 중독 척도의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Vol.22, No.1, pp.125-139, 2003.
- [62] 홍성례, 정여주, "성별, 자아존중감 및 인터넷음란물 매체 몰입정도가 관계만족 의 매개효과를 통해 성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학 신입생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Vol.30, No.3, pp.69-82, 2012.
- [63] 황정희, *온라인상의 음란물이 청소년의 성비행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사회복지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 [64] 김주환, 김민규, 홍세희,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논문 쓰기*,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09.
- [65] 안정임, 김동규,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증후군과 음란물 접촉 실태에 관한 보고',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과 음란물 수용에 관한 토론회 자료집, 7-39, 서울:한국여성민우회, 2000.
- [66] 주리애, 하승수, 권석만, "인터넷 음란물을 자주 찾는 남녀대학생의 심리적 특성과 성 행동,"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제21권, 제4호, pp.965-982, 2002.
- [67] G. A. Parker, *Sexual selection and sexual conflict*, Sexual selection and reproductive competition in insects, pp.123-166, 1979.
- [68] 유은희, 하은혜, "인터넷 중독 유형에 따른 청소년의 온-오프라인 친구관계: 게임, 채팅, 음란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Vol.53, pp.5-29, 2009.
- [69] H. J. Oh, *The relationship of attachment with parents and friends, and hope to juvenile delinquency*, Dankook University, Seoul, 2009.
- [70] J. R. Lee, "Adolescents' attachments to parents, teachers, and friends, and delinquencies,"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Vol.17, No.4, pp.563-574, 2008.

### 저 자 소 개

양 속 자(Sook-Ja Yang)

정회원



- 2009년 2월 : 동아대학교 환경생명공학과
- 2011년 8월 : 동아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사회복지학석사)
- 2015년 3월 ~ 현재 : 신라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복지학 박사과정

• 현재 : 자영업

<관심분야> : 청소년, 원예치료, 다문화가정